

◆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

① (충북 제천시)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

- 국내·외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

② (전남 해남군) 재활용품 수거 포인트 보상제 도입

-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거·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체계(포인트제)를 마련

◆ 지역동향 ③ (전 국) 공직자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

1 (충북 제천시)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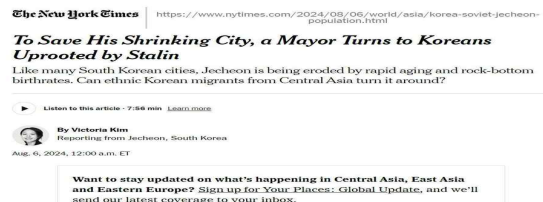
※ '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

- 충북 제천시는 '00년대 이후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, '21년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되었으나, 시멘트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자동화로 인해 외부에서 인구가 새로 유입되기 쉽지 않은 상황
- 市는 타 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를 우리 市로 옮겨 오는 제로섬 (Zero-sum) 방식이 아닌, 국내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고려인* 동포를 제천시에 정착시켜 인구감소 추세를 전환하겠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
 - *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, 현재 우즈베키스탄·카자흐스탄 등 舊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
- '23.4월 市는 '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'를 제정, 고려인 주거·생활을 비롯해 한국어 교육, 외국어 통·번역, 취·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
 - 또한, 국내에 소재한 '대한고려인협회' 등을 찾아 '제천 이주 설명회'를 열고, 시장이 직접 우즈베키스탄·카자흐스탄·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고려인 제천 이주·유치 협약을 체결
- 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되자 市는 '23.10월 고려인 동포 이주사업을 본격 개시,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52명이 10.23일부터 이주
 - 市는 사전에 제천 이주 고려인의 지역기업 취업을 알선하고, 고려인들은 이주 후 3개월 동안 市가 제공하는 단기 체류교육시설에 거주하며 한국어·한국문화 교육을 이수
 - 특히,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수당(자녀 1인당 30만원)을 지급 받으며,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(연 20만원), 법률·고충상담 서비스를 이용 가능

-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이주 고려인이 정착하지 않고 타 외국인 근로자처럼 단기간 돈을 벌고 난 후에는 제천을 떠나 곧 모국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명
 - 이에 市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, 고려인 이주 사업은 노동력 유치에 그치지 않는 동포 정착 사업으로, 재외동포청 개청(23.6월) 등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설명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
- 市는 사업 시작과 함께 지역 대학인 대원대 기숙사를 활용, 재외 동포지원센터를 개소, 정착 고려인 동포는 '24.11월 500명을 돌파한 이래 '25년 현재 542명이 거주
 - 정착한 고려인은 최소 2년 간 제천에 거주해야 하며, 가족 단위 이주가 많아 자녀들도 대부분 제천 지역 초·중·고에 진학, 市에서는 향후 초등학생 방과후 한국어 교육·미취학 돌봄 등도 추진할 계획



제천 재외동포지원센터 개소식(23.10월)



뉴욕타임즈 관련 기사('24.8월)

출처 : 동아일보, 한겨레, 제천시 등

- 市의 고려인 이주정착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노력이 성과를 보이면서, '24.8월에는 美 뉴욕타임즈에 우수사례로 게재되었고, 道 차원에서 고려인 이주·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등, 인접 자치단체로 사업이 확산되는 분위기
 - 道는 1.24일 '고려인 주민지원 조례' 개정 및 '고려인 동포 유학생 지원조례'를 제정, 道지사가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,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2 (전남 해남군) 재활용품 수거 포인트 보상제 도입

※ '23년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

-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-19 유행으로 비대면 배달·배송이 일반화되면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폐기물이 늘어났지만 상당수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고민
 - ※ '21년 해남군 전체 폐기물(15,282톤) 중 재활용품은 12.2%(1,859톤)에 달하고 있지만, 재활용품의 실제 재 판매량은 53.8%(1,001톤)에 불과
- 이에 郡은 '21년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'고품질 회수 보상제(땅끝희망이)'를 도입

- 주민이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, 품목별로 kg당 10~6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포인트로 교환해 주고, 포인트는 다른 재활용 제품, 봉사활동 시간, 지역상품권 등으로 보상
- 또한,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교환이 가능한 '플리마켓(연 2회)', 연말 포인트 시상식(단체부, 학생부, 개인부, 읍면별) 등 이벤트와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
- '24.5월에는 읍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수거공간을 이전하여 자원순환 복합센터를 개관,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·체험교육장을 구비하였으며, 전국 최초로 전기버스를 이용한 이동식 거점 수거 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시설 접근성을 제고
- 아울러, 쓰레기 배출뿐 아니라, 수거 및 분류 작업도 각 마을에서 선발된 자원봉사단체(부녀회·주민자치회 등)가 참여하고, 자원순환 페스타 등을 개최하는 등 郡 전체에 일회용품 재활용 분위기를 확산 중

3 전 국(공직자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)

-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(AI)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 전개
- 정부(행안부)는 공직 내 AI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3.13일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, 향후 공무원 교육생을 선발해 실제 AI 개발 플랫폼 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
- 서울시는 공무원의 AI 등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('23년 조례 마련),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생성형 AI가 행정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을 확인하고, 수집·분석한 활용 사례 425건을 배포
 -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(208명) 대비 약 3배 증가한 570명으로 확대해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화를 가속화할 방침
- 부산시는 생성형 AI 활용 시 발생 가능한 신뢰성 문제 해결과 민감·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,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'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' 제정을 추진
- 전북도는 모든 공무원이 빠른 속도로 AI를 활용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 전용 시스템 서버(3억원)를 구축할 계획
 - ※ '25.1월 도청 공무원의 챗GPT 활용은 14만여건으로, '24.5월 대비 7.8배 급증
- 울산 울주군은 지난해 네이버 본사 방문 등 AI 현장교육을 실시했으며, 올해는 1월부터 37개 전 부서에 챗GPT 계정을 보급

참 고

시·도지사 주요 일정(3.21)

시·도	시 간	내 용
서 울	-	· 청내근무
부 산	10:30	· 2025 한국노총 부산본부 정기대의원대회
대 구	-	· 청내근무
인 천	10:00	· 市의회 제301회 임시회
광 주	10:00 15:00	· 광주건축사회 제38회 정기총회 ·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
대 전	10:00 19:30	· 市의회 제285회 임시회 ·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
울 산	11:00 15:00	·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개소식 · 제19회 울산 화학의 날 기념식
세 종	10:30 14:00	·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· 세종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개막식
경 기	-	· 청내근무
강 원	09:00	·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
충 북	10:00 14:00	· 道의회 제424회 임시회 · 충주시 순방
충 남	-	· 청내근무
전 북	10:00	· 소통의 날 행사
전 남	-	· 청내근무
경 북	10:40	·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장방문
경 남	14:00	· 道의회 제421회 임시회
제 주	10:00 13:30	· 제80회 식목일 기념식 · 성산면세점 그랜드 오픈 행사